

척도형용사의 의미적 불확정성에 대한 연구

정동규(경원대)

1. 들어가기

거의 모든 자연언어 표현들은 어느 정도 애매성 Vagheit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직관을 통해 애매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의 집합이 존재하는데, 바로 척도형용사 또는 정도형용사 Skalar- oder Gradadjektiv가 여기에 해당한다(Pinkal, 1985: 33): groß, klein, heiß, kalt, schwer, leicht, schnell, langsam 등.

- (1) a. Andreas ist groß.
b. Andreas hat einen teuren Wagen.

위 문장 (1a, b)에서 groß와 teuer는 적어도 뒤에서 언급할 ‘의미의 불확정성’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각 문장들의 진위를 명백히 판단하는데 있어서 불확정적 의미를 야기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안드레아스의 키가 크다’거나 ‘값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책을 읽는다’거나 ‘결혼을 했다’는 것에 비해 의미적으로 진위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애매함의 정도가 매우 크다. 즉 groß와 teuer는 일정한 척도나 경계가 존재하여 그 범위에 근거하여 각각의 의미를 확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표현들이다. 오히려 이들의 의미에는, 있다 해도, 경험적 또는 문화적, 사회적 개연성 정도가 느슨하게 개입하고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척도형용사가 지니는 이러한 의미적 불확정성에 대한 형식의미론적 기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형식문법에서 형용사가 지니는 범주적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특히 Cresswell(1976)에 의한 척도형용사의 의미기술 방법을 중심으로 종래의 분석이 지니는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 원고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종류의 의미론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2.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의 불확정성이란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일의적으로 포착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데, 광의로는 애매성과 중의성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협의로는 애매성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중의적 의미를 제외하려고 하기 때문에 후자에 따라 애매성을 중심으로 의미의 불확정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애매성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vag*이라는 단어 자체도 중의적이거나 애매하다. Alton(1964)에 언급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Binniek, 1970: 148 재인용), *vag*이란 느슨하게 사용되어, 모든 종류의 느슨함, 불확정성, 또는 명료성의 결여, 그리고 明記의 결여, 은유,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막연함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애매성이란 언어 외적 또는 고작해야 화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불확정성이나 不明記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반면 Pinkal은 애매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주어진 세계 상황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을 때 해당 문장은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Semantische Unbestimmtheit>(Pinkal, 1991: 252)

- a) Ein Satz ist semantisch unbestimmt genau dann, wenn ihm trotz hinreichend genauer Kenntnis der relevanten Weltumstände in bestimmten Kontexten weder wahr noch falsch eindeutig als Wahrheitswert zugeordnet werden kann.
- b) Ein Ausdruck ist semantisch unbestimmt, wenn er in Sätzen so vorkommen kann, daß er für deren semantische Unbestimmtheit verantwortlich ist.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에서 목적어에 나타나는 표현에는 그 지시체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다.

(2) Hans hat (irgend)einen Mann getroffen.

즉 (2)에서 표현된 남자는 연령이나 신분 등에 비추어 애매한 표현으로 해당 어휘가 엄밀하게 명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애매성의 유형들을 살펴보자. 먼저 지시적 애매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어휘 의미는 원칙적으로 명료하지만 그 어휘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예를 들어 Anhöhe와 Hügel, Strom과 Fluß, 그리고 Wald와 Gehölz 또는 Busch라는 표현들을 명확하게 어떤 대상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소위 의미의 불확정성이라고 지칭되는 애매성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표현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그 예로 Hansens Buch와 같은 소유격 구문이 대표적이다. 이때 가능한 의미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Kempson, 1977: 124).

- (3) a. das Buch, das Hans geschrieben ist.
- b. das Buch, das zu ihm gehört.
- c. das Buch, das er gelesen hat.
- d. das Buch, das er mir geliehen hat.
- e. das Buch, das er mitgebracht hat, als er zu mir gekommen ist, usw.

위 예문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된 것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애매성은 어휘 의미에 대한 明記의 缺如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그 의미는 명료하지만 단지 일반적으로만 명기되어 있는 표현들이 여기 속한다. 아래 문장에서 gehen은 행위에 있어서 광범위한 변이를 포함하는 경우로 그 의미가 매우 일반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4) Der Student geht in die Stadt/nach Berlin.

(4)에서 gehen은 물론 zu Fuß gehen일 수 있으나 laufen이나 rennen일 수도

있고, 또한 mit dem Fahrrad/Motorrad/Auto fahren이거나 심지어 fliegen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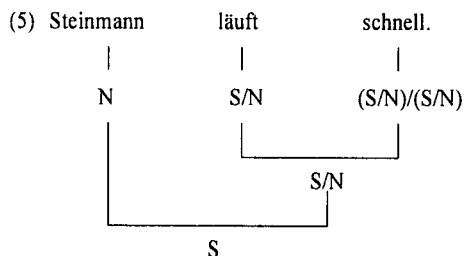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애매성의 유형들에서 관찰되는 핵심적인 속성은 바로 의미의 불확정성이다. 이때 이 불확정성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 가능한데, 하나는 수량에 적용되는 정도 불확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방적 구성성 *open-texturedness*으로 이것은 각각 Carnap의 외연적 애매성과 내포적 애매성에 상당히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inniek, 1970: 149f). 먼저 정도 불확정성은 수나 양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이건 절대적이건 간에 groß나 wichtig 등과 같이 척도 내지 정도의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때 적용되는 대부분의 수량 기준이란 고작해야 인간에 의해 경험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예를 들어 큰/작은 동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절대적 의미를 지니거나 일정한 기준적 척도에 따라 계량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인간과 비교해서 크거나 작은 동물이며, 짧은 거리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거기까지 이르기에 편리한 정도의 거리일 뿐인데 여기서 언급된 인간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반면에 해당 표현의 의미적 속성들이 통상적 또는 상식적 화맥을 통해 정의되는 개방적 구성성은 사람들에게 의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애매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das glatte Gesicht나 der glatte Tisch에서 glatt라는 표현은 통상 잘 묘사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작해야 상대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잘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면도를 잘한 얼굴이나 매끄러운 탁자라 해도 잘 닦은 보석만큼 매끄럽지는 못하며 현미경으로 본다면 심지어 거칠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위 불확정성이나 명기의 결여로 특정 지워지는 애매성이란 언어 표현 자체에 적용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언어가 표현하는 생각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따라서 애매성에 대한 논의는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현과 의미라는 언어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언어 외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형용사의 범주

모든 형식문법적 연구에서는 통사적 범주가 의미해석의 토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늘 범주 문제를 엄밀하게 취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문장들의 정형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법모형의 하나로 폴란드의 논리학자 Ajdukiewicz(1935)에 의해 정리되고, Bar-Hillel(1964), Lewis(1974), Montague(1974)를 거쳐 자연언어의 기술을 위해 발전된 범주문법은 특히 통사론과 의미론의 병렬적 구축이라는 목표에 충실히 기여하고 있는 일종의 문맥자유 구절구조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범주문법은 소수의 기본 범주를 지닌다. 예를 들어 문장 S(sentence), 이름 N(name), 그리고 보통명사 CN(common noun) 등의 범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이름 범주 N은 다시 동사구나 명사구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 각각의 기본범주는 무한히 많은 새로운 범주들을 유도할 수 있어서, 만약 $c, c_1, \dots, c_n (n \geq 1)$ 이 임의의 범주라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c/c_1, \dots, c_n$ 이라는 유도범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c/c_1, \dots, c_n$ 은 c_1, \dots, c_n 을 취해 c 를 만드는 범주이고, 이러한 유도범주 체계 속에는 암암리에 구절구조가 내재하고 있다. 또한 문장의 각 성분들 사이에는 기능적 위계관계가 존재하여, 예를 들어 다음의 Steinmann läuft schnell에서 각 표현들 사이에는 상호 병렬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기능자/함수자 Funktor와 논항에 의한 기능적 위계관계가 나타난다(Lewis, 1976: 3).



따라서 schnell은 läuft를 논항으로 취하는 논리기능자가 되고, 나아가 이렇게 결합된 läuft schnell은 Steinmann의 논리기능자로서 주어를 논항으로 취해서 문장 Steinmann läuft schnell이라는 문장을 만든다. 이러한 기능적 위계관

계는 문장 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해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범주문법의 의미해석이 통사적 결합과정을 따라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한편 범주문법에 의한 분석에 있어서는 통사적으로 상이한 범주이지만 동일한 논리유형을 지니는 것들이 존재한다. 즉 A, B가 통사범주일 때, A/B 뿐만 아니라 A//B 또는 A///B 등도 통사범주가 되는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논리유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자동사와 보통명사는 각각 상이한 통사범주로서 t/e, t//e 범주가 주어지지만, 내포논리어에서는 모두 1항 술어가 되어 동일한 의미유형 <e, t>를 지니게 된다(Dowty, 1978: 136). 이때 범주 이름은 위의 s, n 에 각각 상응하는 e, t 또는 0, 1 등을 이용하여 <e, t>, 또는 <0, 1> 등의 논리범주 표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들 상호 간에는 표기의 차이만이 있을 뿐 기능상으로 차이가 없고 나아가 상이한 표기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므로 인용에서는 각자의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Montague(1974)의 소위 PTQ에서의 표기방식에 따르려고 한다.

3.1. 형용사, 동사, 명사의 범주적 특성

술어논리나 생성의미론에 의하면, 다음 문장의 자동사와 명사구 그리고 형용사는 모두 하나의 속성에 해당한다.

- (6) a. Otto schläft.
- b. Otto ist ein Hund.
- c. Otto ist weiß.

위 문장 (6)에서 schläft, ist ein Hund, ist weiß는 모두 1항 속성이며, 이때 각 속성들은 해당 속성을 지니거나 만족시키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 있어서 이것들을 집합언어인 람다-언어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Hamann, 1991: 657).

- (7) a. $\lambda x(\text{schläft}(x))$
- b. $\lambda x(\text{Hund}(x))$
- c. $\lambda x(\text{weiß}(x))$

이것들은 각각 잠을 자고 있는 개체들의 집합, 개라는 개체들의 집합, 그리고 흰 개체들의 집합이 되고, 이어서 명사구를 취해 문장을 만드는 s/n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이 된다.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형용사는 동사나 명사와 마찬가지로 속성을 표현하여, 범주문법에서 자동사나 명사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GB이론에서도 형용사가 동사와 명사의 속성을 모두 지니는 ‘verblike’, ‘nounlike’로 취급되고 있는 것과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는 범주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그리고 기능적 상이점들이 다양하게 언급될 있다. 먼저 동사는 전형적으로 동작, 과정, 행위 등을 표현하며, 시간 속에서 진행되며, 시간적 변화를 묘사하고 시칭적 경계를 지니며 시간적으로 구조화 될 수 있는 반면에, 명사는 상태적이고, 지속적 속성을 표현하며 종종 그러한 속성들이 나타나는 개체들을 표현하기도 하며 형태론적으로 시제, 상, 태에 대해 무표적이다. 그리고 형용사의 경우 부가적 사용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주요한 기능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형용사와 명사와의 기능적 차별성마저 설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명사도 복합구조에서 수식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Hamann, 1991: 659): silken scarf와 silk scarf, hölzernes Pferd와 Holzpferd. 이와 같이 수식어라는 기능이 명사와 형용사를 구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자연종과 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8) Das Pferd ist rot.

Carlson은 이 문장에서 ‘붉다(ist rot)’는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속성’이라는 (종래의) 규범적 개념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반면에 ‘말이라는 것(das Pferd)’은 속성들의 집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둘 사이의 차이로 보았다. 이에 따라 명사는 자연종 natural kind 그리고 형용사는 질 quality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칭하였다.(Carlson, 1977) 아울러 오래 전에 Bloomfield도 명사와 형용사 사이의 소위 개념적 차이를 이용하여 전자의 부류의미는 “그러한 종(種)의 대상” 그리고 후자는 “종(種) 개체들의 질적 특성”을 지닌다(1933: 203)고 Carlson과 유사한 정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단일한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속성들의 모음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가 드러나는 예를 들어

gut을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게다가 명사를 ‘고정 지시어 rigid designator’로 간주함으로써 형용사와 동일하게 취급한 Kripke(1972)를 고려하는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와 명사의 구분을 위한 정당성의 근거는 수식어를 통한 비교 또는 측정의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형용사는 sehr, viel, genug, zu 등과 같은 수식어를 취함으로써 해당 형용사로 표현되는 속성에 입각해서 개체를 비교하거나 개체에 일정한 정도의 측정치를 부여할 수 있다(Hamann, 1991: 659).

- (9) a. Paul ist sehr groß/zu groß/groß genug.
 b. Paul ist so groß wie Peter.
 c. Paul ist größer als Peter.
 d. Paul ist 180 cm groß.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적어도 명사의 속성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10) a. ???Die Gebäude ist sehr ein Haus.
 b. ???Die Gebäude ist mehr ein Haus als die andere.

위 문장들이 용인되기 어려운 이유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명사 Haus의 속성 중 어떤 것이 비교되는 지를 명사 자체로서는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명사의 경우 명사 자체에 입각한 비교나 정도성의 부여는 불가능하게 된다. 즉 형용사가 정도적인 graduierbar 반면, 명사는 고유하게 정도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3.2. 형용사의 통사적 범주

형용사가 술어적 또는 부가어적으로 사용되며, 술어형용사의 범주는 s/n이고 부가형용사는 전통적으로 수식어에 해당하여 (s/n)/(s/n), 즉 속성으로부터 속성으로 가는 함수라는 사실은 이미 앞장에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두 범주 중 어느 것이 형용사의 고유한 기능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3.2.1. 술어적 접근법

전통 술어논리적 분석에 따르면 다음의 문장 (12)은 (12')이 된다.

(11) Rice Hall ist eine rote Gebäude.

(11') $g(R) \wedge r(R)$

(11')은 Rice Hall ist eine Gebäude und Rice Hall ist rot으로 다시 쓸 수 있고, 곧 Rice Hall로 불리는 개체가 빌딩인 대상의 집합 그리고 붉은 대상의 집합과 교집합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성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즉 형용사의 부가적 사용은 술어적 표현으로부터 소위 ‘형용사 전치 Adjective Fronting’라는 변형을 통해 유도된다고 보았다.

(12) Rice Hall ist eine Gebäude, die rot ist

⇒ Rice Hall ist eine Gebäude, rot

⇒ Rice Hall ist eine rote Gebäude

나아가 이러한 술어적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논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다(Hamann, 1991, 663f).

- 1) 술어적 사용으로부터 부가적 사용으로 유도되는 과정에서 해당 형용사의 어휘적 내용이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 2) 아동의 언어습득이나 실어증 그리고 담화장애 환자의 언어재습득 과정에서 술어적 사용이 기본적이라는 증거가 보인다.
- 3) 대부분의 술어형용사는 부가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 4) 관계절의 수식과 부가적 수식 사이의 유사성이 포착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술어적 접근법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술어적 사용으로부터 부가적 사용으로 유도되는 과정에서 해당 형용사의 어휘적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 명사구에서 형용사는 유도과정을 의미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3) a. *ein Offizier, der ehemalg ist ein ehemaliger Offizier

b. *ein Onkel, der angeblich ist ein angeblicher Onkel

오히려 이러한 형용사들은 원래 명사수식어로서 CN/CN 즉 (s/n)/(s/n) 범주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neulich*와 *vergebens*처럼 오로지 술어적 사용만이 가능한 형용사들도 위 논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Bolinger(1967)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통해 부가적 형용사를 관계절로부터 유도하는 것에 반대하여, 다음의 문장에서 관찰되는 동일한 형용사의 서로 다른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14) a. the stars which are visible

b. the stars visible

c. the visible stars

(14a)는 a) ‘현재 보이는 별들’, 그리고 b) ‘원칙적으로 지구에서부터 볼 수 있는 별들’이라는 두 해석을 모두 지니지만, (14b)는 a) 그리고 (14c)는 b)의 해석만을 지닌다.

3.2.2. 부가어적 접근법

앞의 술어적 접근법과 달리 형용사를 명사수식어와 같이 CN/CN 즉 속성에서 속성으로 가는 함수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다음의 문장 (15b)는 a로부터 포착되는 것이다.

- (15) a. Das Haus ist ein hohes Haus.
b. Das Haus ist hoch.

그러나 CN/CN 범주로의 접근법의 문제는 어떤 것이 삭제 또는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특히 고유명사를 주어로 지니는 경우 무엇이 삭제되었는지를 결정하기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보다 잘 드러난다.

- (16) a. Fido ist klein.
b. Fido ist ein kleiner Hund.
c. Fido ist ein kleines Kind.
d. Fido ist ein kleiner Elefant.
e. Fido ist ein kleines Individuum.

명백히 (16a)에 대한 비교부류를 b-e에서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화맥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eenan/Falz(1978)는 비교부류를 확정하기 않고 그대로 남겨 놓음으로써 삭제 또는 보충되어야 요소에 대한 결정권을 화맥에게 넘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Hamann, 1991: 666f). 그러나 화맥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 (17) Der Turm ist hoch (im Vergleich zu den näheren Häusern).
(17) a. Der Turm ist ein hoher Turm.
b. Der Turm ist ein hohes Haus.

위 (17)은 (17a)라고 하던 b라고 하던 모두 어색하다. 게다가 (15)에서 주어에 의해 주어지는 비교부류의 결정도 주어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 (18) a. Der Turm ist schön (als ein Turm).
b. Der Turm ist schön (als eine Gebäude).
c. Der Turm ist schön (als eine Wand für die alpinische Übung).

즉 (18b, c)처럼 상이한 화맥이 주어지는 경우 주어의 역할은 매우 보잘것 없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용사의 범주문제를 종합해 보면, 형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범주는 *s/n* 아니면 *(s/n)/(s/n)*여야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하나를 고유한 범주로 삼는다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이전에 형용사라는 품사 자체의 범위 설정에 나타나는 어려움(예를 들어, 대명사적 형용사 *Pronominaladjektiv*: *all, andersämtlich, solch, mehrere* 등)과 독어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적 구별이 불분명한 것(예를 들어 형용사적 부사 *Adjektivadverb*)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고유 범주를 통해 다양한 사용을 기술하는 것 보다 개별적 사용에 대해 상이한 범주를 부여하여 의미해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3.3. 불명료한 표현으로서의 척도형용사

다음의 형용사들은 명료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 1) hoch, schnell, hart, laut, bitter, heiß, klug, schön ...
- 2) tot, stumm, rund, steuerlich, viereckig, eiskalt, oberflächenvergütig ...
(Heidolph, et. al., 1981: 604)

형용사가 속성 내지 질적 판단에 관여하는 한 크던 작던 간에 어느 정도 애매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1)과 2)가 보이는 애매함의 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tot*는 사물을 분류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주어진 사물들은 죽은 *tot* 개체이거나 죽지 않은 *nicht-tot* 개체들의 집합으로 분류 가능하며, 형용사 *tot*은 애매성이 거의 없거나 명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반의어를 통해 지시되는 외연 사이에 거의 틈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동시에 죽지 않기도 한 개체를 상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의 형용사는 해당 표현의 부정이 바로 반의어가 된다: *nicht-tot* ↔ *lebend*, *nicht-lebend* ↔ *tot*. 이에 비해 *hoch*는 사물을 분류하는데 사용될 수 없어서, 주어진 사물은 높거나 *hoch* 높지 않은 *nicht-hoch* 개체 중 어느 하나

에 반드시 편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형용사의 반의어 사이에는 개체들의 속성을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의미는 애매한 것이 된다. 이러한 애매성은 보편적인 화자나 청자의 지식이 아니라 비교 부류들과 문화의존적 규범과 같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작동하여 자주 변화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형용사의 반의어가 지시하는 외연의 틈은 개체들이 둘 중 어느 외연 속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표준적 척도나 부류가 보다 엄밀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바로 후자에 속하는 형용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척도/정도형용사에 속하는 것으로, 이처럼 불명료한 형용사의 의미기술은 단순히 속성이나 그러한 속성을 지닌 개체들의 집합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미루고 여기서는 일단 이러한 종류의 형용사가 있고 이들의 의미 영역 내지 경계가 명료하지 않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척도형용사의 의미기술

형용사의 범주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형식언어학적 연구에서는 특별한 장치 없이 모든 형용사의 의미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 (19) a. If $\gamma \in PAJ$, $\zeta \in PCN$, and γ , ζ translate into γ' , ζ' respectively, then $F9(\gamma, \zeta)$ translates into $\gamma'(\wedge \zeta')$. (Bennett, 1976, Thomason, 1976, Dowty, 1978)
- b. i) Wenn A ein prädikativ verwendetes Adjektiv ist, dann wird A übersetzt als $\lambda x[A(x)]$.
- ii) Wenn A ein attributiv verwendetes Adjektiv ist, dann wird A übersetzt als $\lambda P[\lambda x[A(x) \wedge P(x)]]$. (Lohnstein, 1996: 161)

(19a)는 형용사를 명사수식어 즉 CN/CN 또는 (s/n)/(s/n)로 간주하는 방식에서의 번역규칙이고, b는 각각 술어적 그리고 부가적 방식에서의 번역규칙이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척도 또는 정도형용사가 지니는 의미의 애매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위 번역규칙 이외의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Cresswell (1976)의 의미기술 방법을 중심으로 척도형용사의 의미를 얼마나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Cresswell이 착안한 것은 척도형용사가 tot나 rund 등과 달리 일정한 사회적, 문화적 척도를 기준으로 개체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의 정도로 언급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용사는 비록 기본형으로 표현되더라도 내용상 비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는 통상 척도상의 점들을 고려하게 마련이고, 이때 이 척도는 다시 일종의 관계 relation로 표시될 수 있어서, 척도상의 점들은 해당 관계의 영역 field으로 대체될 수 있다: 집합이론에서 관계는 순서쌍의 집합이고, 관계의 영역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물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Cresswell, 1976: 266).

(20) A DEGREE(of comparison) is a pair $\langle u, \succ \rangle$, where \succ is a relation and $u \in \mathcal{X}(\succ)$.

이것을 간략히 언급하면 어떤 관계의 영역에 속하는 개체가 ‘많고 적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교의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때 관계는 절대치와 같은 정해진 척도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리고는 최소한 부분적 순서를 지니며 타동성과 반대칭성을 지니는 관계이다. 이때 반대칭성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관계이다.

(21) Eine Relation R heißt antisymmetrisch, wenn aus $\langle x, y \rangle \in R$ und $\langle y, x \rangle \in R$ folgt: $x = y$. (Lohnstein, 1996: 22)

따라서 다음의 문장들은 모두 ‘키가 큰 남자’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형용사 verheiratet-ledig에서 가능한 것과 같은 엄밀한 집합으로의 분류는 어렵다.

- (22) a. ein großer Mann
 b. ein sehr großer Mann
 c. ein größerer Mann

오히려 이 문장들의 기저에 있는 의미적 개념은 ‘키가 x 정도로 큰 남자 x-much tall man’(이때 x는 a degree of tallness)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술어 논리적으로 처리해 보면 1항 술어인 <verheiratet, Mann>과 달리 <groß, Mann>은 정도에 대한 것을 하나 더 논항으로 갖는 2항 술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22)a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 (22) a. x ist ein Mann, der groß bis zum Grade y ist.

그리고 이것을 반영하여 groß의 범주를 설정하면 지금까지 단순한 명사수식어((s/n)/(s/n))로서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0,1>, <0,1>>이 아니라 <<0,1,1>, <0,1>>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된다.

- (23) $V(\text{tall})$ is a function $\zeta \in \mathbf{D}_{\langle\langle 0,1,1 \rangle, \langle 0,1 \rangle\rangle}$ such that where $\omega \in \mathbf{D}_{\langle 0,1 \rangle}$, ω is in the domain of ζ iff ω is a property whose domain contains only physical objects. For any $a, b \in \mathbf{D}_1$ in the domain of $\zeta(\omega)$, and $w \in \mathbf{W}$, $w \in \zeta(\omega)(a,b)$ iff $w \in \omega(a)$ and $b = \langle u, \rangle$, where \rangle is the relation whose field is the set of all v such that v is a spatial distance, and $\langle v_1, v_2 \rangle \in \rangle$ iff v_1 is a greater distance than v_2 , and u is the between a 's extremities in w , and in the case of most c 's such that $w \in \omega(c)$ this distance will typically be vertical. (Cresswell, 1976: 267)

그런데 (23)을 살펴보면 (22)의 기저에 놓여있는 정도의 결정이 두 개체가 지니는 척도 사이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비록 비교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하나의 점을 통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지만 (23)의 밑줄 부분은 해당 개체의 척도가 일정한 기준 척도와의 비교급을 통해 상호 비교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키가 172cm(A) 또는 182cm(B)인 사람이 각각 있을 때 이들이 ‘키가 큰’지 아닌지의 여부는 화자가 어떤

비교치에 입각하여 정도의 결정을 수행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치가 168cm인 경우 A와 B는 모두 비교치 보다 크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이 된다. 바로 이 점이 groß와 같은 형용사가 비교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이유이다. 따라서 비록 이 형용사가 원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상 ‘~보다 큰’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급을 이용하여 의미번역을 할 필요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비교급에 대한 의미론적 취급을 살펴보자. 통상 ‘er than’의 의미를 지니는 비교급에 대한 의미론적 부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24) $V(er\ than)$ is the function $\zeta \in D_{\langle 0,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such that where w and $w' \in D_{\langle 0, 1 \rangle}$, w and w' are in the domain of ζ only if they are function whose domains consist entirely of degrees. For any $w \in W$, $w \in \zeta(\omega, \omega')$ iff there is an a and a b such that $\omega \in \omega(a)$ and $w \in \omega'(b)$, and for any such a and b there is some relation $>$ and some u_1 and u_2 in $\mathcal{F}(>)$, and $a = \langle u_1, > \rangle$ and $b = \langle u_2, > \rangle$ and $u_1 > u_2$. (Cresswell, 1976: 268)

그런데 (24)에서 ‘er than’은 $\langle 0,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범주를 지니는 함수로 밀줄 친 것처럼 두 개체들 사이의 정도를 비교하는데 매우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교급 표현 größer를 위한 것이지 groß가 암암리에 치르고 있는 비교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교급의 의미를 내적으로 지니면서 동시에 원급의 표현을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미론적 부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Cresswell에 의해 제시된 것이 ‘pos’인데,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비교급의 의미 ‘er than the average-’이지만 표층에서는 비교급이 아니라 단지 원급으로 실현되는 표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 (25) $V(pos)$ is the function η in $D_{\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rangle \rangle}$ such that where $\zeta \in D_{\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langle 0, 1 \rangle}$, $\eta(\zeta)$ is the following function: For any $\omega \in D_{\langle 0, 1 \rangle}$ and $a \in D_1$ and $w \in W$, $w \in \eta(\zeta)(\omega)(a)$ iff $w \in \omega(a)$ and there is exactly one b such that $\zeta(\omega)(a, b)$; and for that b , $b = \langle u, > \rangle$ (for some $>$ and $u \in \mathcal{F}(>)$) and u is toward the top of the scale determined by $>$

when restricted to those v such that for some $c, w \in \zeta(\omega)(c, \langle v, \rangle)$
and $w \in \omega(c)$.(Cresswell, 1976: 272)

pos는 $\langle\langle\langle 0,1 \rangle, \langle 0,1 \rangle\rangle, \langle\langle 0,1,1 \rangle, \langle 0,1 \rangle\rangle$ 범주를 지니는 함수로, 비교급 표현에 대한 ‘er than’과 달리 표층에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22a)는 이제 $\langle\text{groß}, \text{Mann}\rangle$ 이 아니라 $\langle\langle\text{pos}, \text{groß}\rangle, \text{Mann}\rangle$ 이 된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은 $u_1 u_2$ 인 경우 u_1 이 u_2 보다 비교상의 높은 정도치를 지닌다는 것을 단지 암시하는 은유적 성격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어서, Hans ist ein größerer Mann als Peter와 Hans ist ein großer Mann 사이에 어떤 함의 관계도 도출되지 않는다. 즉 ‘er than’이 두 개체 사이의 정도를 비교와 관련되어 있다면, ‘pos’에서의 비교는 각 개체의 정도가 일정한 비교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남은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척도형용사는 애매하며 정도적이다. 아울러 이것은 부가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유형의 수식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애매성과 정도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Montague(1974)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용사를 명료한 술어로 간주하건 아니면 명사수식어 간주하건 간에 해당 의미나 그러한 의미를 속성으로 지니는 개체들의 집합에 대한 적절한 결과는 직관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또한 Cresswell이 범주문법과 집합론을 바탕으로 척도형용사에 대한 의미 기술을 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엄밀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해당 의미가 온전히 해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애매성 또는 정도의 비교라는 차원에서 도입한 $\langle\text{pos}\rangle$ 가 의미적으로 ‘er than the average -’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비교상의 기준점을 비교치로 정하건 아니면 비교집합으로 정하건 간에 예를 들어 평균치 — 이것이 기준점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 와 같은 비교치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화/청자의 세계지식이나 화맥이 비교집합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도 우연적 또는 임의적 성격을 지니는 많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자료들이 소위 개체의 집합이라는 입장에서 일상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모국어화자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집합과 가치 사이를 연결시키는 함수를 온전히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사람의 집합과 사람으로서 큰 것이 무엇인지를 연결시키는 데에도 느슨한 개연적 관계만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Pinkal은 집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심리학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1985: 47)고 진술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의 본질은 척도형용사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성이나 정도라는 문제를 참이나 거짓 또는 키가 큰 개체들의 집합과 그렇지 않은 개체들의 집합이라는 2치적 입장으로 기술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애매성이나 정도라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진위라고 하는 2치 체계의 틀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소속 정도”를 이용하여 의미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부분적인 진리로 수용하여 다루는 ‘정도의 의미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논문에서 다루려고 한다.

참고문헌

- Ajdukiewicz, K. (1935): Die syntaktische Konnexität, In: *Studia Philosophica* 1, S. 1-27.
- Bar-Hillel, Y. (1964), *Language and Information*, Reading, Mass.
- Bennett, M. (1976): A Variation and Extension of a Montague Fragment of English, in: B. H. Partee(ed.), *Montague Grammar*, Academic Press, NY, S. 119-163.
- Binnick, R. I. (1970): Ambiguity and Vagueness, in: *CLS*, vol. 6.
- Bloomfield, L. (1933): *Language*, Holt, Reinhart and Winston, NY.
- Carlson, G. N. (1977): A Unified Analysis of the English Bare Plural,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S. 413-458.
- Cresswell, M. J. (1976): The Semantics of Degree, in: B. H. Partee(ed.), *Montague Grammar*, Academic Press, NY, S.261-292.
- Dowty, D. R. (1978): *A Guide to Montague's PTQ*,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 Club, Bloomington.
- Hamann, C. (1991): Adjektivsemantik, in: *HSK 6*, Berlin, S. 657-672.
- Heidolph, K. E./Flämig, W./Motsch, W. (1981): *Grundzüge einer deutschen Sprache*, Akademie-Verlag, Berlin.
- Kamp, H. (1975): Two Theories About Adjectives, in: E. Keenan(ed.), *Forma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S. 123-155.
- Keenan, E. L./Falz, L. (1978): Logical Types for Natural Language, in: *Working Papers in Syntax and Semantics 3*, UCLA, LA.
- Kempson, R. M. (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 Kripke, S. A. (1972): Naming and Necessity, in: D. Davidson/G. H. Harman(ed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Reidel, Dordrecht, S.253-355, 763-769.
- Lewis, D. (1976): General Semantics, in: B. H. Partee(ed.), *Montague Grammar*, Academic Press, NY, S.1-50.
- Lohnstein, H. (1996): *Formale Semantik und Natürliche Sprache*,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 Pinkal, M. (1985): How to Refer with Vague Descriptions, in: R. Bäuerle/U. Egli/A. v. Stechow(eds.), *Semantics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Springer, Berlin, S.32-50.
- Pinkal, M. (1991): Vagheit und Ambiguität, in: *HSK 6*, Berlin, S.250-269.

Zusammenfassung

Semantische Unbestimmtheit der Skalaradjektiven

Chung, Dong-Gyu(Kyungwon Univ.)

Ein sprachlicher Ausdruck ist in verschiedenen Situationen in einer Vielzahl unterschiedlicher Lesarten oder Präzisierungen verwendbar, und zwar mit dem Grad an Präzision, der den jeweiligen kommunikativen Erfordernissen angemessen ist. Sokommt Vagheit/Ambiguität in sprachlichen Ausdrücken fast durchgängig vor.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Möglichkeit der semantischen Übersetzung der

Skalaradjektiven(groß, klein, heiß, kalt, schwer, leicht, schnell, langsam usw.) untersucht, die eigentlich die Vagheit als eine der konstitutiven Eigenschaften haben. Den Schwerpunkt dafür bildet die semantische Analyse über die Graduierbarkeit und Vergleichbarkeit der Positivformen der Adjektiven, die vor allem M.J.Cresswell 1976 in seiner Arbeit formuliert hat.

$V(\text{pos})$ is the function η in $\mathbf{D}_{\langle\langle\langle 0,1 \rangle, \langle 0,1 \rangle \rangle, \langle\langle 0,1,1 \rangle, \langle 0,1 \rangle \rangle \rangle}$ such that where $\zeta \in \mathbf{D}_{\langle\langle 0,1,1 \rangle, \langle 0,1 \rangle \rangle}$, $\eta(\zeta)$ is the following function: For any $\omega \in \mathbf{D}_{\langle 0,1 \rangle}$ and $a \in \mathbf{D}_1$ and $w \in \mathbf{W}$, $w \in \eta(\zeta)(\omega)(a)$ iff $w \in \omega(a)$ and there is exactly one b such that $\zeta(\omega)(a, b)$; and for that b , $b = \langle u, \rangle$ (for some \rangle and $u \in \mathcal{A}(\rangle)$) and u is toward the top of the scale determined by \rangle when restricted to those v such that for some c , $w \in \zeta(\omega)(c, \langle v, \rangle)$ and $w \in \omega(c)$.(Cresswell, 1976: 272)

Obwohl sein Verfahren anhand von dem semantischen Symbol $\langle \text{pos} \rangle$ eine methodische und theoretische Adäquatheit erfüllt, bleibt der Vergleichwert noch unterspezifiziert. Für die Behandlung dieser semantischen Unterspezifikation ist eine neue Semantik erforderlich, die den Wahrheitwert für die Zugehörigkeitsgrade der Skalaradjektive einschließt.

[검색어] 척도형용사, 애매성, 정도, 범주문법
Skalaradjektiv, Vagheit, Grad, Kategorialgrammatik

정동규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
경원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dgchung@mail.kyungwon.ac.kr

논문 접수일: 2004. 10. 31
논문 심사일: 2004. 11. 25